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인이 된 마녀…박해 중에도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 지켜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Chiapas) 산악 지역에서 ‘오디오 성경’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세우는 새로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에 따르면 치아파스의 깊은 산속 마을에 사는 후아니타(Juanita)는 한때 마녀로 불렸지만 지금은 박해받는 기독교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후아니타는 생사의 경계에서 아들의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후아니타는 마녀였던 시절, 이 언덕들에서 의식을 행하고 산파로 일하며 전통 의술을 사용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후아니타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불태워 모든 것을 잣더미로 만들었다. 그녀와 아이들은 몸에 입은 옷만 걸친 채 달아나야 했다. 후아니타의 집은 박해자들에 의해 불타고, 가족은 쫓겨났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오디오 성경이 있었다.

글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오디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언어, 촌토실(Tzotzil)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나는 울고 있지만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아들 안토니오(Antonio)는 현재 이 지역에서 130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다. 그는 “사람들이 스페인어 설교보다 자기 언어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르게 역사한다”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종 순간부터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구금·폭행 위협에 시달린다. 그러나 안토니오 목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후아니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라며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로마서 10:11-12)

하나님, 한때는 우상을 섬기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지만, 성경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는 증인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의 말씀이 후아니타와 박해받는 멕시코 교회들을 붙들어 주사 때마다 영의 양식으로 이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더욱 뚜렷하고 명확하게 비추어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리투아니아 공항, 담배 밀수 풍선 때문에 또 폐쇄…승객 4,000명 피해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이 인접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공항이 담배 밀수용으로 추정되는 풍선 때문에 다시 폐쇄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현지매체 LRT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항은 현지시간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6시 30분까지 운항을 중단했고, 약 30편의 항공편이 이착륙에 차질을 빚어 4,000명 넘는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벨라루스에서 띄운 기상 관측용 풍선 수십 개가 영공에 진입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접한 검문소 2곳도 긴급 폐쇄했으며, 앞서 이달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에도 기상 관측용 풍선 20여 개가 출몰해 공항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당국은 벨라루스 밀수업자들이 유럽연합(EU) 국가로 담배를 비싸게 팔기 위해 풍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풍선 12개와 담배 7,000갑이 회수됐고 관련자 4명이 체포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는 밀수에 더해 벨라루스 당국이 자국 항공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풍선을 날린다며, 풍선이 또 대규모로 출몰할 경우 벨라루스와 국경을 즉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잠언 3:29,32)

하나님, 리투아니아에 밀수품을 운반하고 항공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풍선을 날려 피해를 조장하는 벨라루스의 밀수업자들과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악을 꾀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에서 돌이켜 주를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소서.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막힌 담을 복음으로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되어 열방에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 한국,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진료 5년 새 30%↑…우울증·정동장애 급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을 찾은 자립준비청년이 5년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501명의 최근 5년(2020-2024년)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898명으로 30.7% 증가했다. 자립준비청년을 건강보험 가입자(4,955명)와 의료급여 수급자(3,546명)로 나눠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경우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매년 500-600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질환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와 우울증 등이 동반된 ‘정동장애’로 진료받은 경우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21:1-2,6)

하나님, 5년 새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급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의 부담과 외로움을 다 아시는 주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을 익탁하오니 주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려는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며 영원히 지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미국 파일럿 선교사 니제르 수도에서 납치…전 세계 기도 요청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파일럿 선교사인 케빈 라이더아웃(Kevin Rideout, 48)이 수도 니아메이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그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라이더아웃은 ‘SIM’(Serving In Mission) 소속 선교사로, 니아메이의 치안·보안이 비교적 엄격한 고보안 지역인 샤토 1주택가의 자택에서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국제방송은 22일 보도를 통해, 그가 브라비아 호텔 인근에서 세 명의 남성에게 납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대통령궁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도심 중심부다. 니아메이 주재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케빈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CBS 뉴스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 전반에서 그의 구조와 안전한 귀환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니제르 미국대사관은 23일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니제르 전역에서 미국인 납치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케빈과 그의 형제 이언 라이더아웃(Ian Rideout)은 모두 노스캐롤라이나 살럿 본부의 SIM 비행사로 근무 중이다. 두 형제는 우물 시추, 난민 구호, 산림 복원, 병원 지원, 홍수 피해자 구호, 문해 교육, 고아 돌봄, 과부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역을 담당하며 서아프리카 전역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의 납치 소식이 알려지자,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BGEA) 회장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은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 분파가 통제하는 북부 지역으로 끌려갔다는 보도가 있다”며 전 세계 신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케빈의 친구 고머 윌리엄스(Gomer Williams) 역시 “그는 나의 친구이며, 지금 대부분의 미국인이 상상조차 못할 환경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희망과 확신을 주시며, 포로로 잡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케빈의 싸움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케빈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고백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크 해리스(Mark Harris) 의원도 “그의 구출과 가족의 힘, 그리고 평안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당국과 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며 기도 캠페인에 동참했다(출처: 복음 기도신문 종합).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시편 38:20-22)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낯선 땅에서 비행선교를 감당했던 케빈 선교사가 고향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식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급히 구하며 간구합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케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도우사 하루빨리 구출되게 하옵소서. 미국 정부가 주를 의지하여 포로 구출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억류된 케빈 선교사의 믿음을 불드사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니제르와 온 세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유버전, 다운로드 10억 돌파…11월 ‘성경 읽기 챌린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이 누적 10억 다운로드를 기념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성경의 달(Global Bible Month)’ 행사를 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신자들이 11월 한 달 동안 매일 말씀을 읽는 ‘30일 성경 챌린지’를 통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 하도록 돋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1월 17일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콤 센터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간증, 찬양 공연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유버전 창립자 보비 그룬월드는 “이번 10억 회 돌파는 기술이 아닌 성경 자체의 승리”라며 “앱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유버전 앱이 1,770만 회 이상 설치됐고, 성서공회와 알파, 24-7 기도운동, 티어펀드 등 700여 단체가 협력해 말씀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세인트올데이트교회 스티븐 포스터 목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경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하나님, 성경 앱 유버전이 10억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에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에 목마른 심령을 열방 곳곳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행사와 말씀 운동에 협력하는 단체들을 통해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그 가르침을 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으로 삼아 오직 주만 따르는 기쁨의 현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세속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주목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빛과 소금되게 하옵소서.

▲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서 드론으로 민간인 공격…유엔 ‘전쟁 범죄’ 규정

러시아가 일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드론으로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수백 건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자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우크라이나 독립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여간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헤르손에 드론을 보내 민간인을 공격했으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인도 및 집 뒷마당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구급차나 소방대를 겨냥해 공격했다. 보고서는 헤르손 현지 당국을 인용해 지난 1년간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영구적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주민들을 헤르손에서 내쫓으려는 의도적인 공격의 패턴이라며 “이는 강제 이주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레미야 22:3)

하나님,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러시아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많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리며 압박하는 러시아 정부를 꾸짖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낮추사 죽음 뒤에 임할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소서. 속히 서로를 해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의 공포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찾아가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실뿐 아니라 아픔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사 지역, 원주민 개신교 목회자에 강제 퇴거 압박



콜롬비아 카우카주 나사(Nasa) 원주민 지역에서 개신교 신앙을 이유로 한 원주민 목회자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10월 2일 칼도노 시 베타니아 공동체 전통 위원회는 아리스티데스 초쿠에 목사의 지역 내 활동에 대해 논의한 뒤, 목사에게 10월 17일 이전에 떠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부터 나사 복음주의 교회(ICEN)에서 사역해온 그는 전통 원주민 협의회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초쿠에 목사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역을 이어가겠다. 교회도 그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과거 교회 구성원들이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다며 재발 가능성은 우려했다.

베타니아 지역의 개신교 공동체는 오랫동안 차별, 낙인, 위협, 교회 폐쇄, 강제 이주 압력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12년과 2021년에는 전통 지도자들이 주도한 폭력 사건으로 여러 교회와 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2021년 11월 2일, 전통 원주민 협의회 지도부는 해당 지역 내 기독교 교회들과의 대화 중단 및 종교 시설 폐쇄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콜롬비아 헌법과 1994년 제정된 법률 제133호, 미주인권협약 제18조,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 및 제27조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외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소수 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전통 의식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사에서 압박이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이용 제한과 강제 이주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한 종교 소수 공동체 지도자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이념을 따르든지 떠나라고 한다”며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아이들을 교육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의 신앙을 따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검찰 등 정부 기관에 강제 이주 위험과 신앙의 자유 보장 부족에 대해 호소했지만, 당국은 “원주민 자치 사안”이라며 개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타니아와 인근 지역의 개신교 공동체는 대화 의사를 밝히며, ▲전통 당국의 공식 사과, ▲자녀들의 신앙 자유 보장, ▲개신교인에 대한 낙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신앙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려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6-58)

하나님, 원주민협의회의 반복적인 위협과 교회 폐쇄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중인을 콜롬비아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과 무속신앙을 유지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들의 마음속의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죄를 멀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는 부흥을 주소서. 다음세대가 진리 가운데 자라도록 보호하시고, 환란과 박해 가운데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후 9개월간 2만 2,000명 성별 변경

독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9개월간 2만 2,000명 이상이 성별을 변경했다고 연합뉴스가 슈테른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후 작년 11월 한 달간 7,057명이 새로 성별을 등록했고, 올해 7월까지 누적 2만 2,000명을 넘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의 30배에 달했다. 첫 2개월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사례가 45%,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경우가 33%였다. 독일은 의사심리감정과 법원 결정 등 기준 성전환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제정했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은 총선 공약으로 제도 수정 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신명기 18:12-13)

하나님,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선 독일의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정하신 성을 역행하여 스스로 바꾸는 가증한 일을 법제화하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법이 속히 철회되게 하옵소서. 독일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세우사 십자가 복음이 내 영혼에 주신 첫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받은 사랑의 농도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독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리로 깨어 완전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 영국 교회들, 할로윈 주말 72시간 기도 철야 돌입

영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인 ‘전국 기도와 예배의 날(NDOPW)’이 오는 할로윈 주말 동안 72시간의 연속 기도 철야를 열어 “어둠의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자”고 전국 교회들에 호소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NDOPW 설립자이자 ‘빛을 비추라’ 캠페인을 이끄는 조너선 올로예데 목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나라 위에 비추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할 때”라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과 진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도 운동은 1,500개 참여 교회에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로 일어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철야 기도는 10월 30일 자정부터 11월 2일까지 이어지며, 요한복음 1장 5절을 인용한 올로예데 목사는 “영국은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한다”며 모든 신자에게 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기도 운동은 12월 열릴 ‘빛을 비추라 2025’의 전초 단계로, 연말에는 거리와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성가와 복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만 명이 참여해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올해는 두 배 확산을 목표로 젊은 세대와 소셜미디어 활용을 강화하고, ‘스프링 하베스트’와 협력해 5만 8,000명의 수감자와 노숙인 시설에도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9,14)

하나님, 할로윈 주말 동안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영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에게 먼저 복음 앞에 서는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이 온 세상과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의 기이한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